

제 76 호

제 5부활 주일

1974. 5.12.

숲정이

발행인	김 영 신
인쇄인	김 봉 희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성소주일】

* 이주일의 미사 *

서로 사랑하시오

김 영 일 신부



“당신들이 서로 사랑하면 이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당신들이 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요한13:35)

예수님은 이세상에 신인(神人)으로 오셔서 새로운 제명을 알려주셨습니다. 즉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당신이 실천하십시오로 가르쳐 주시었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애는 모든 이에게 선과 이익을 위해서 당신을 회생의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랑은 전부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받는게 아니고 주는것입니다.

바로사도께서도 “나는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가진 것을 다 바치겠고 또 나 자신을 희생하겠습니다”(고린토전서12:15)하고 고린토 인들에게 당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와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 하면 “나의 제자”라고 하시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서로 사랑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①주는 것이고, ②동정하는 것이고, ③용서해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①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남에게 친절과 존경을 한다든가,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든가, 불쌍한 자에게 밥 한술을, 병자에게 문병을, 근심하는자에게 위로를 등등... 하는것이 바로 자기를 주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주는 것은 마음의 평화와 안정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도 “남에게 주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받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여러분의 품에 안겨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에게 되어주는 분량만큼 여러분도 받을 것입니다”(루가 6:38)하고 자기를 주는 자들에게 대한 하느님의 보수를 알려주셨습니다.

②사랑은 동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살피지 않을 때에 자신의 결점과 약점을 발견할 때가있고, 실지 약점과 결점 투성입니다. 이런 때 마다 남에게 동정받고 싶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에게 동정한다는 것은 형제애의 제2의 행위이며 회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르코는 “이웃을 제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번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마르코 12:33)하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성방지거살레시오께서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인내하는 것은 병고를 겪고있는 병원과 같다”까지 하시었습니다. (2면 하단에계속)

(1)개회식

□**입당송** 새로운 노래를 주께 불러드려라. 묘한 일들 당신이 하시었도다. 당신의 정의를 백성들 앞에서 밝히셨도다. 알렐루야.

(2)말씀의전례

□**제 1독서** (사도행전 14, 20b-27, 성서 P. 300)

하느님께서 그들을 도와 이루어 주신 일들을 보고하다.

□**중계송** ◎ 내 하느님, 임금님, 영원토록 당신 이름

높이 기리오리다.

주님은 자애롭고 불쌍히 여기시며 역정에 더디시고 사랑이 지극하오이다. 주님은 온갖 것을 선으로 대하시고 일체의 조물들을 어여뵈 여기시나이다. ◎

□**제 2독서** (묵시록 21:1-5a, 성서 P, 588)

하느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으리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너희에게 새 생명을 사노니, 내 너희를 사랑하였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알렐루야

□**복음**(요한 13, 31-33. 34-35, 성서 P. 242)

너희에게 새 생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 부활 감사송

□ 신자들의 기도

1. 주여, 이 하찮한 오월은 당신의 어머니이시며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를 특별히 공경하는 때입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어머니의 포근한 품에서 녹이게 하소서. ◎주여...

2. 대지의 어니이신 성모마리아여, 서로 혈통기만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녹여주소서. ◎

3. 고통받는 이의 위로자이신 어머니, 질병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의 명들은 마음을 낮게 하소서. ◎

+ 주여 비오니, 당신 어머니를 공경할 줄 아는 우리의 기도를 저버리지 마시고 받아 주소서. 우리주... 아멘

(3)성찬의 전례

성찬식

봉헌

□**영성체송**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내게 붙어 있는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알렐루야

(4)폐회식

* 숲정이 산책 *



제 6차 호남 성직자 친선 체육 대회

맑은 하늘에 백구(白球)가 나른다.
 하얀 반바지에 잘어올리는 검붉은 팔다리가 움직일 때마다 넷트를 넘는 볼 소리가 팡 파앙 듣기 좋게 울린다.
 테니스 경기를 끝낸 전라남·북도 성직자들 70여명이 왕성한 식욕으로 밥그릇을 비우고 나니 해가 한낮이다.

이제 배구장이 손님을 끈다. 왕년 솜씨가 터져 나온다. 대각선으로 상대방코트에 꽂히는볼에 그만손들을 못대고 만다. 엉뚱한 실수에 선수 신부들은 솔직하다“마이 미스”하고 손을 번쩍 들며 고백할 때 “어 참 솔직하다” “제가 솔직하지 않으면 어쩔 것이어” 하는 응원단 신부님들의 사죄경(?)에 온통 웃음꽃이 핀다.

마지막 대결은 축구 경기장에서 이루어 졌다. 테니스와 배구에서 실패한 광주 교구 신부님들은 축구에서 세팔을 따내야 종합우승을 한단다. 축구경기는 흡사 국제경기처럼 보인다. 광주교구는 한국 신부님이 세분뿐이고 전주교구는 외국 신부님이 세분뿐이다.

2m 13cm의 아일랜드 신부님이 백(F.B)으로 골문을 지키니 광주교구 문전은 마치 철벽같고 전주교구는 힘에 밀려 넘어지고, 광주교구 골키퍼는 한번에 상대방 골문까지 볼을 차내니 승부는 뻔하다.

광주의 윤 대주교님과 전주의 김 주교님이 테니스선수로 뚝 제 6차 호남 성직자 친선 체육대회는 두분 주교님이 끝까지 자리를 지킨 가운데 경기의 막을 내렸다. 우승기는 김 주교님으로부터

윤 대주교님께 넘겨졌다. 경기가 끝난 운동장에 아일랜드 신부님의 트럼펫 소리와 멕시코 신부님들의 머리를 맞대고 질러대는 환호소리가 어울려 퍼지며 작별을 고한다.



축 구 경 기



시 상 식

성적
 테니스-광주(36점) 전주(48점)
 배구-광주(0점) 전주(18점)
 축구-광주(33점) 전주(0점)
 종합우승-광주(69점)
 준우승-전주(66점)
 승부보다도 친선에 목적을 두고 전주와 광주에서 번갈아 열리는 이 체육대회가 금년에는 성소 주일을 지내고 열렸다.

성소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교구에서는 사제 양성 후원사업이 열을 올리고있는 이때에 시내 각 본당에서는 더욱 뜻있는 행사들이 있었다.

신학생 부모님들을 초대하여 다과회를 베풀고 식사를 대접하는 본당이 있는가 하면 (복자,서학동,중앙), 주일학교 아동들의 글짓기와 그림 그리기가 노승 본당에서있었다. 덕진 본당은 소풍을 갔고 전동 본당에서는 주일학교 운동회가 있었다.

성소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이다.

성소에 응하는 문제, 성소를 위한 가정교육, 사제양성 후원 사업등 우리들이 할 일은 많다.

사제 양성 후원 사업에
 빠짐없이 참여합시다.

(1면에서 계속)

우리들이 형제의 결집에 인내하고 교만한 태도와 거치른말과 무례한 태도에 동정할 때에 참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은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어, 아깝니다……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십시오” (갈라디야 6:2-3)하고 바오로께서 말씀하시었습니다.

◎남을 용서해주어야 합니다.

“성나는 일이 있더라도 죄는 짓지마시오. 해질 때까지

성단채로 있어서는 안됩니다.”(에페소 4:26) 남을 용서하는 사람은 관대해지고 남에게 용서도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주고 동정하고 용서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며, 이런 행위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남에게 보여주게되며, 그리스도를 우리들 안에서 찾을때 그리스도의 기쁜 소리를 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서학동 주임신부>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영진약국

-조제약 전문

김 울태(베드로)

☎육교열 중앙 시장통
 (전화 ㉠4577)

* 교형 여러분의 집 *

스타 사진관

장 남 수(바오로)

● 오거리동, 동아여관 앞
 전화 ㉠ 6094

☆ 추억의 집 ☆

푸른 사진관

이 준 영(모세)

○ 전동, 성모병원 건너편
 전화 ㉠ 6059

□신간안내□



어디로 가세요?

오기순 신부 지음
(4×6배판 370면 값700원)

인생은 오고 싶어 이세상에 왔나요? 누가 보냈기에 왔나요?

어디서 왔나요? 무엇하러 왔나요? 한번 왔으니 가야만 하는 인생이기에 주아
를 가리지 않고 가고 있군요.

어디로 가는 인생일까요? 무엇하러 가는 인생인가요? 종착점에 다달으면 어찌
되는 인생일까요? 그 누구도 자신있게 대답할 수가 없군요. 인생은 이다지도 답
답하고 안타까울까요?

우리 뿐이 아니고 이세상에 왔다가 바람같이 사라져간 모든 인생들도 그렇군요.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은 어디 있고, 또 무엇을 하고 어찌 되었을까요.

그들 역시 답답하고 애달픈 인생들이군요. 왔다 가고, 또 오고 가는 답답한 인생들
의 애달픈 실예를 들어 안타까운 인생문제를 한데 모았습니다. 그 누구나 인생이라
면 한번쯤은 읽고, 나는 어디서 왔고 누가 보내서 왔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무엇하러 왔는가? 지금은 어디로 무엇하러 가고 있는가? 그곳에 가면 나는 과
연 어찌될 것인가, 심사숙고해 볼 만한 책자입니다.

이 책자를 읽는다면 인간에게 신앙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가를 깨닫겠지요.
병상에서 오래도록 신음하며 죽음을 이마에 맞대고 사경을 헤매는 애처로운 환자
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인생의 황혼길을 정처없이 방황하는 분들에게도
꼭 권하고 싶습니다.

어디로 무엇하러 가는지나 알고 인생의 마지막 길을 걸으라고요.

주문처 520 전주시 다가동 4가 86
복자성당 전화 ⑤ 5238 오기순 신부

요심이 (43) 김병오 512

이 돈을 주일금으로
바쳐라



올치 사과를 사 먹어야지

사과
사-쇼



여보시요 사과 장수
이리 오쇼



너 이놈!

익크!
아버지다



현대인의 필수 조건은
양서를 골라서
읽는 것이다. (T.2~7398)
*성 바오로 서원

가톨릭 센터 프로그램 (관장 신부 박진량, 간사 안지은, 전화 ③3498)

- 매주 일요일 오후 3시...이삭회 (성경, 성가, 건전 포크송)
- 매주 월요일 7시 반...메아리합창단
- 월, 화, 목요일 7시 반...일본어 교실 영어교실 매주 월~목 7시
- 목요일 8시... "목요일 밤에" (남녀 젊은이들의 대화)
- 금요일 8시...레크레이션 (주최; 가톨릭 센터와 J.O.C.)
- 시민상담실-건강, 여성, 외국, 교육, 결혼, 신앙 등 매주 월~토 밤 8~9시

이주간의 성경

- 13<월> 독서 (사도행전 14:5-17, 성서 P. 299) 16<목> 독서 (사도행전 15:7-21, 성서 P. 301)
- 복음 (요한 14:21-26, 성서 P. 244) 복음 (요한 15:9-11, 성서 P. 246)
- 14<화> 성 마리아 사도 축일 17<금> 독서 (사도행전 15:22-31, 성서 P. 302)
- 독서 (사도행전 1:15-17, 20-26, 성서 P. 301) 복음 (요한 15:12-17, 성서 P. 246)
- 복음 (요한 15:9-17, 성서 P. 246) 18<토> 성 요한 1세 교황
- 15<수> 독서 (사도행전 15:1-6, 성서 P. 300) 독서 (사도행전 16:1-10, 성서 P. 303)
- 복음 (요한 15:1-8, 성서 P. 245) 복음 (요한 15:18-21, 성서 P. 246)

장의차·꽃상여·입관 입관부축
일체 구비

최씨관집

- ◎ 교우들에게 특별별가 봉사 ◎
- 최병화 (그레고리오)
- 전주 남부시장 B동 87호
- (전화 ⑥ 6691 교활85번)

☆집필도장청부 ※ 고급실크벽지☆

대동 페인트상사 대동지업사

- 동문 네거리 (풍남동 1가 17)
- 전화 ⑤5986
- 임도민고(정원)

선물용 케익과 빵, 파자, 참쌀떡 준비!

프랑스제과 *임금님찾집*

- 전주 전신 전화국 앞
- 제과 ⑤5011 찾집 ⑤5013
- 김원준(야교버)

제 4 지구 6개 본당 소식

【소】

1. 제 2차 그리스도 공동체 목상회 (13<월>-16<목>, 가톨릭 센터)
제 2차 그리스도 공동체 목상회의 성공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드립니다.

2. 주교님 일본 방문 (15<수>)

본 교구 교구장이신 김재덕 주교님은 한국이 낳은 성녀를 기념하기 위한 주리아제에 참석하시기 위하여 10일 간의 여행으로 오는 15일에 일본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주교님의 일본 방문이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제 6차 호남성직자 친선 체육대회에서 광주 대교구 종합우승 (7일) - 2년 참조바람.
4. 제 7회 말씀의 광장 (5월 20일 밤 8시 가톨릭 센터 강당)

주제 : 복음화와 인간세발

말씀하실분 : 김현수 교수 (전주 교대교수 전북 인간관계 협회장)

박진량 신부 (가톨릭센터 관장)

5. 각 본당 학생 단체 회원 모임 (학생회, 레지오, 썸 각종 단체회원)

때 : 1974.5.12 오후 2시

곳 : 해성 중학교 종교감실

성소주일을 지낸 다음주를 기한 프로그램이 있겠음.

【식】

【중앙】

전화 ②2651 주임 신부 안복진
②3874 보좌 신부 박창식
사도 회장 이복석

1. 성모회 월례회 (다음 주일 공식 미사후)
2. 신자 단합대회 겸 뿌리아 옥외행사 (다음 주일) 5,210
3. 신용조합 월례회 (다음 주일 공식 미사후)
통장 지참 요망 (이사회-17<금> 오후 7시)
4. 전자 올겐 특별헌금 (누계 275,000원)
강 누시아 (5만원), 익명 (1만원), 김영진, 익명 (각 5천원), 정필수 (5백원)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봉헌금 40,520원, 감사합니다.

【북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오기훈
사도 회장 조성호

1. L.M. 옥외행사 (오늘 공식 미사후)
 - ①장소 ; 효자동 사무소 앞 부근 산
 - ②참가 ; 단원, 협조단원, 성우회원 및 희망자
 - ③지참 ; 묵주, 땃세라, 도시락, 음료수
2. 성모 성월 합동기도 (매일 저녁 미사후)
성모상 앞에서 많이 모여 주세요.
3. 교무금을 완납합니다.
자진 신앙 하셨던 교무금을 속히 완납하시어 교구와 본당 운영에 적극 협조합니다.
4. 축 발간 "어디로 가세요" (본당 신부님 지음)
영혼의 양식인 이책을 한 가정에 한권씩 준비합니다
◎미사참배 10시 (351명) 7시 (122명) 계 473명
□지난 주 성미 3말, 누계 276말 8회
성소주일 특별 헌금 4,415원, 봉헌금 16,086원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함승철
사도 회장 조해형

1. 신용조합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2. 부녀회 월례회 (다음 주일)
3. 재속 형제회 주회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4. 한 백년 신부님 새성당 신축을 위해 휴가
사도회 및 교우 여러분께서 염려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주 성모님의 안배하심으로 뜻을 이루고 오시도록 우리 모두 기도합니다.
5. 본당과 공소 주일학교 어린이 합동소풍 (다음 주일)
송광사로 가는 소풍에 부모님들의 많은 참석 바라며 협조를 구합니다.
6. 성소주일 행사 시상식 (토요일 오후 어린이 미사)
1등-이영옥 (5년) 2등-이민희 (1년)
3등-함태호 (5년) 방홍영 (5년)
그림 장려상-이옥 (4년), 이윤덕 (5년), 김진희 (6년)
글짓기 장려상-박현정 (5년), 김광자, 고민자 (4년)
7. 교무금 분납하여 교구비 납부합니다.
8. 신축 기금 협조해주시분, 감사합니다.
소귀례 (앰프 성금 5만원), 문형주 (1만 1천원), 박귀남, 한정수 (각 1천원), 이점래, 장금용 (각 5백원) 계 64,000 누계 1,258,422원
□지난주 신축 성미 2말 5회, 누계 164말 5회
성소주일 특별헌금 1,695원, 봉헌금 16,960원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영필
사도 회장 이거영

1. 공동체 목상회에 본당 신부님 참석
목상회의 성공을 위해 기도합니다.
2. 금주의 미사
월-오전 10시 (혼배미사)
화~목-미사 없음 (목상회 관제로)
금-오전 10시반 (혼배미사) 토-오후 7시반
3. 교리교사 소풍 (오늘, 내아리)
교리교사의 노고에 감사하는 뜻으로 전주 시내 연합 소풍에 참가시키됩니다. 교리교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4. 예비자 교리 오늘 없음
☆ 축 결혼 ☆
박중식군과 고정자양 (13일 10시)
이철주군과 유순자양 (17일 10시반)
□지난 주일 봉헌금 14,533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②3222 주임 신부 범석규
사도 회장 송재진

1. 미사 시간 변경 (오늘 밤 부터)
밤 미사 (주일, 수, 토요일)-오후 8시
 2. 예비자 교리 (매 주일 공식 미사와 저녁미사후)
수요일 오후 3시, 저녁미사후
 3. 주일학교 1일 교장 (양윤모 선생님)
 4. 자모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후)
 5. 첫영성체 교리 (매일 오후 4시)
 6. L.M. 옥외행사 26일로 연기
 7. 애령회 특별헌금 있음
 8. 방ziger 3회 글라라 형제회
5월 월례회는 26일 상판성당에서.
 9. 신용조합 월례회 (14일 화)
 10. 기도로 세계 평화와 남북통일을 이룩하자
기도회 참가 희망자를 선착순 50명 접수함
① 때 19일 (다음 주일) 오전 8시 출발
② 곳 ; 자유의 다리 앞 입진각 (판문점)
③ 교통비 ; 1,500원 (왕복) *가톨릭서보 참조
- 축 범석규 본당 신부님 영명 축일 (14일)
오늘 공식 미사후 영명축하식 있음.
□성소주일 특별 헌금 9,050원, 봉헌금 39,894원

【덕진】

전화 ②8082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김종환

1. 신용조합 임원회 (오늘 공식 미사후)
2. 신용조합 월례회 (다음 주일 공식 미사후)
불참시에는 대부 받음 적에 1할 공제됩니다.
3. 화~금요일 미사없음
신부님께서 대진 신학교 집포지음 참석 관제로
4. 야외미사에 많이 참석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5. 아동교리 (주일 오후 2시, 아동미사 오후 4시)
□애령회 기금 조성 성미 1말 4, 현금 200원
성소 주일 특별헌금 3,530, 봉헌금 10,111원,